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7호 【루계 제23269호】 주체99(2010)년 11월 13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875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875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나붙어있는 군부대에는 수령결사옹위의 열풍이 세차게 굽이치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군부대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동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 《총폭탄!》,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산발들을 뒤흔들며 뢰성마냥 울려퍼지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평해동지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작전지휘실과 군사연구실들에 들리시여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장병들이 고도의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으며 부대에서 작전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지휘관들을 현대전의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조직지휘할수 있는 높은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갖춘 지휘관들로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높고 험한 산중에 자리잡고있는 부대의 종합훈련장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군부대에서는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훈련시설들을 훌륭히 갖추어놓고 부대의 특성에 맞게 훈련을 조직진행함으로써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가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산골짜기에 특색있게 꾸려진 각종 훈련장들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보시고 부대에서 《훈련도 전투다!》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훈련을 맹렬히 벌려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군들로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해 치하하시면서 자나깨나 싸움준비만을 생각하는 이들의 전투적인 훈련기풍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부대에서 자체로 꾸린 종합편의시설 병사원을 비롯한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군부대에서는 6년전 부대에 찾아오시여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하여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후방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군인들이 목욕탕, 리발실, 오락실 등 각종 편의봉사시설이 그쯘히 갖추어진 훌륭한 병사원을 리용하면서 보람찬 군무생활의 나날을 보내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지휘성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에서 자체로 건설한 농목장과 종합가공소를 비롯한 후방시설들의 리용실태를 알아보시고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지휘관, 병사들이 일심동체가 되여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고 부대관리도 잘하고있으며 특히 부업경리에서 놀라운 전변을 일으킨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변혁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간고한 시련도 앞장서 웃으며 헤쳐온 우리 군대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창조적기풍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울창한 숲속에 휴양각마냥 산뜻하게 들어앉은 병영의 구내를 거니시며 부대군인들이 선군시대 혁명적군인문화의 창조자들답게 병영과 주변들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훌륭히 꾸렸다고 하시면서 이 부대는 전투정치훈련은 물론 부대관리, 후방사업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군부대관하 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대의 교양실과 침실, 세목장과 식당, 취사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대에서 문화교양수단들을 훌륭히 갖추어놓고 군인들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을 견결한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을 지닌 선군시대의 리수복, 강호영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상교양자료, 텔레비죤리용정형과 영예게시판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실태를 일일이 알아보시고 청년군인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생활조건을 잘 마련해주어 그들이 언제나 랑만과 희열에 넘쳐 군사복무를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대군인들이 항일유격대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본받아 맡겨진 군사임무수행에서 모범일뿐아니라 살림살이도 알뜰히 꾸려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조국보위성전에 용약 떨쳐나 귀중한 청춘시절을 총대와 함께 빛내여가고있는 군인들은 모두가 훌륭한 혁명가, 조국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안에는 지휘관들은 전사들을 친동생같이 사랑하며 전사들은 지휘관들을 맏형, 맏누이와 같이 따르고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동지애의 기풍이 나날이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인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풍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 전체 군인들이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을 더욱 튼튼히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군부대 전체 군인들은 또다시 부대에 찾아오시여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기수,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정 론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

력사의 10월과 더불어 또 한번 힘을 백배한 선군조선!

지구의 한복판에 영원불패의 사회주의성새로, 주체의 강성대국의 성공탑으로 나날이 힘차게 솟구쳐오르는 그 위용에 세상이 놀라고 있다.

눈앞의 현실이 서방의 예상을 아예 뒤집어놓는다.

《당신들의 눈이 잘못된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주의북조선입니다.》

세계의 눈과 귀라고 하는 미국의 CNN방송은 개선청년공원의 밤 현란한 불장식속에 흥취나게 돌아가는 최신유희시설들에 몸을 싣고 즐거운 환성을 올리며 현대문명을 한껏 누리는 평양시민들의 모습을 현지에서 보도하면서 세계 수십억시청자들이 착각하지 않게 이렇게 서두를 떼야 했다.

열병식단상에 오르신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과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창창한 래일에 대한 환희와 격정을 폭발하며 열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

경축의 광장을 쩡쩡 누벼나가는 무적의 총폭탄대오와 금시 적진을 짓뭉개고 불소나기를 쏟아부을것만 같은 최신형땅크들과 대구경방사포들,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최첨단미싸일종합체의 거연한 철의 흐름…

조선의 호탕한 웃음인양 10월의 밤하늘에 황홀경을 펼치며 터져오르는 축포의 불보라, 김일성광장과 5월1일경기장에 장관을 펼친 행복의 원무와 《아리랑》춤바다…

동서방의 제노라 하는 언론들이 앞을 다투어 신비한 조선에 달려와 놀라운 조선의 모습을 생생한 화폭으로 온 행성에 전송했다.

하여 온 세계가 보았다.

우리 혁명의 수뇌부의 존엄높은 모습을 우러렀고 상상을 초월하는 불패의 군력과 일심단결의 기상에 경탄하였으며 번영과 행복이 파도쳐오는 이 땅의 소리에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혁명적대고조의 진군속에서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품고있던 리상과 포부가 하나하나 현실로 꽃펴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조선, 이 나라의 현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그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예측하는가.

진실에 충실하고 력사발전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한한 힘의 분출과 상승기운을 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 사는 이 나라에서 지금 어떤 변이 일어나고있고 이 인민의 앞길에 얼마나 장쾌한 승리와 창창한 미래가 펼쳐져있는가.

세상사람들이여, 패권과 자본의 안경만으로만 세상을 보는자들, 이 땅의 눈부신 현실을 바로 보려 하지 않고 악감만 속에 가득 들어차있는자들이 피워올린 외곡과 중상의 두터운 연막때문에 아직도 편견과 의혹, 우려에 사로잡혀있거든 이 땅에 와서 보라.

그러면 조선의 일심단결이 왜 핵무기보다 강하다고 하며 조선식사회주의가 무엇으로 하여 영원불패의 성새로 우뚝 솟아있는지 그 의문을 조금이나마 풀수 있을것이다.

10월의 광장에서 지축을 울린 열병대오의 척척척 발걸음소리에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선군조선의 힘찬 진군소리를 들어야 하며 강성대국삼천리에 지원의 원대한 포부를 기어이 활짝 꽃피워놓을 백두산장군들의 맹세를 들어야 한다.

우리 인민이 자기 령도자를 우러러 만세를 부르며 흘리는 뜨거운 눈물의 순결함과 충정의 무게,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장군님식솔의 특유한 가풍을 보아야 한다.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 인덕정치, 광폭정치와 이 땅의 매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피줄처럼 련결되여있는가를 알아야 하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리라는 이 나라 천만심장의 고동이 어떻게 높뛰는가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혼연일체의 용용한 대하에서 밀려난 몇방울의 거품을 보고 어리석은 《진단》을 내리는 가소로운자들, GDP니 《다우지수》니 하는것밖에는 현실을 평가할 자막대기가 없는 자본의 노예들은 이 땅에 와보지 않는한 죽을 때까지도 조선의 강대성의 수수께끼를 풀수 없을것이다.

와서 보라!

이 나라에 왜 제국주의의 《봉쇄》니 《제재》니 하는것이 통하지 않는가를 알려면 주체철이 사품쳐 쏟아져내리는 성강과 김철에도 가보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이 폭포쳐나오는 남흥과 함흥에도 가보며 무릉도원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세계굴지의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도 가보라.

만년제방이 눈뿌리 아득히 뻗어나간 대계도 간석지에 가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의 구호의 참뜻을 알수 있고 CNC화된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면 조선사람들이 어떻게 첨단을 돌파하는가를 볼수 있으며 대학들과 과학연구기지들에 가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돌진하는 우리 인민의 슬기와 숨결을 한껏 느낄수 있다.

유명한 옥류관에 가서 철갑상어와 자라료리도 맛보고 불야경을 이룬 거리와 마을, 유원지들, 현대적아빠트들과 화려한 극장들에 가보면 우리 인민이 누리는 부귀영화의 멋을 알게 될것이다.

세상의 모든 침략자들이 무리지어 밀려든다 해도 일격에 섬멸해버릴 위력한 첨단무기들을 쨍쨍 만들어내는 백두산병기창도 보여주어 원쑤들의 눈알이 뒤집히게 하고싶지만 이것은 최후의 항복서를 받아내고나서 볼 일이다.

그렇다. 조선은 나날이 강해지고 커지고 솟구치며 동방일각에 강성대국의 실체를 우렷이 떠올리고있다.

지금 세계가 보고있는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장엄한 지각변동, 이 필연적인 력사적과정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멈춰세울수 없다.

조선을 보려면 똑똑히 보라.

조선을 알려면 똑바로 알라.

주체와 선군!

조선말가운데서도 제일 힘있게 울리는 이 말에 주목을 돌리라.

여기에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 우리 식, 백두의 혈통, 일심단결, 자력갱생 등 우리의 위대하고 귀중한 모든것이 다 함축되여있다.

이것을 알아야 힘을 분출시켜도 Mt급으로 폭발시키고 목표를 내걸어도 최첨단으로 나래치며 비약을 해도 다계단으로 솟구치는 선군조선의 그 맹렬하고도 무궁무진한 추진력을 알수 있다.

지금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들이 와짝 창조되고 사변에 대사변이 련이어 겹치고있다.

그렇다. 때가 온것이다. 축적될대로 축적된 주체의 힘, 민족자존의 정신력이라는 용암이 마침내 활화산으로 분출하였으며 선군의 타종봉이 주체시대의 전면적개화기, 륭성번영의 새시대의 도래를 알리고있다.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등 《주체》라는 글발을 번쩍이며 온 나라를 흥분시키고 선군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성과들은 우리의 부강조국건설력사에서 근본적이며 전환적인 의의를 가지는것들이다.

이것은 제국주의반동들의 《봉쇄》와 《제재》의 쇠울타리를 물먹은 흙담으로 만들어버린 력사적인 패거이다.

부강번영에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 더는 거칠것이란 없게 되였음을 세상에 대고 선포한것이다.

온 세상에 떨치는 내 나라의 행복의 변, 번영의 변에 눈이 시여져 무슨 변이 터진줄도 모르고 《급변사태》니 뭐니 하고 설레발을 치던 눈뜬 장님들은 얼굴을 붉히라.

그 어리석은자들은 《개혁》과 《개방》타령을 불어댈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의 노예, 빚진 종신세가 된 저들의 불안한 처지에 대한 걱정에나 사로잡혀있으라.

우리가 지금처럼 자기 힘에 대한 자부에 넘치고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의 혈통이고 자주적대이며 모든 힘의 원천인 주체와 선군, 여기서 위성도 날아오르고 미싸일도 나오며 첨단기계도 나오고 무릉도원도 꽃펴나는것이니 이 백승의 터전, 만복의 대지에 든든히 뿌리박은 조선은 나날이 강해지고 나날이 커지고 나날이 부유해질것이다.

우리는 주체위업의 정당성과 선군조선의 양양한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최후승리와 원쑤들의 종국적멸망에 대하여 100%의 확신을 가지고 말할수 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못해본 일이 없고 못 가진것이 없으며 그 누구도 무섭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며 어떻게 최후의 통장훈을 부르겠는가는 시간이 증명해줄것이다.

그렇다. 시간은 조선의 편에서 흐르고있다.

《전략적인내》니 《기다리는 전략》이니 하는 념불을 외우며 지연전술에 매달리는 제국주의반동들과 그 하수인들이 가련하기 그지없다.

망상은 환각을 낳고 환각은 더 큰 망상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실상과 허상의 혼탁속에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착각하며 잠꼬대를 하는 가련한 몽유병자들을 어떻게 하면 정신차리게 해주겠는가.

그 무엇을 기다리는 그 눈들에 비쳐들것은 날을 따라 더욱 위압적으로 솟아오르는 강성대국의 실체뿐이며 나날이 더 크게 들려올것은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뿐일것이다.

제국주의망상가들이 헛된 꿈에서 오래동안 깨여나지 못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금성철벽으로 다져지게 될것이며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채 날려보낼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과 무자비한 타격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것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젠가는 반드시 닥쳐올 제국주의침략자들과의 전면대결전에서 어떻게 이기겠는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일된 삼천리조국땅우에 승리자의 웃음을 지으며 원쑤들에게서 어떤 값비싼 배상을 받아내고 전범자들을 어떻게 징벌할것인가를 생각하고있다. 통일의 원쑤들은 백두산총대앞에 그 어떤 자비도 바라지 말라.

선군의 태양이 밝게 빛을 뿌리는 우리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우리 인민은 벌써 국력이 최절정에 이르고 온 나라가 흥하는 강성대국의 대문안에 보금자리를 펴고있으며 어떻게 하면 보다 훌륭한 집에서 살고 보다 희한한 료리를 먹으며 호화로운 극장에서 문명의 첨단을 구가하면서 존엄높고 멋들어진 삶을 향유하겠는가를 생각하고있다.

세계여, 그날에 와서 보라 김정일강성대국을!

강성대국선포의 축포가 오르는 그날 우리가 사회주의지상락원을 어떻게 번듯하게 꾸려놓았고 우리가 얼마나 가슴후련한 승리를 이룩했는가를 와서 보라.

위대한 김일성민족이 통일된 삼천리강토우에서 어떻게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한껏 떨치고 어떻게 떵떵 소리치며 잘사는가를 와서 보라.

전 성 호

선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새 문화의 창조자로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군관학교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학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이곳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대담하게 작전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자체의 힘으로 후방공급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활조건과 교육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수많은 유능한 지휘관들을 키워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 군관학교는 어디를 보나 하나같이 깨끗하여 정신이 번쩍 든다고, 이런 훌륭한 교육환경이 보장되여야 부대관리를 잘하는 지휘관들을 키워낼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의 지성과 땀이 슴배여있고 본보기로 될만 한것이라면 값높이 평가해주시고 적극 내세워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하기에 그날 그이께서는 이 학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처럼 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다면 강성대국건설위업도 앞당겨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온 사회가 이들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훈련강화의 고귀한 지침

어느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고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실 때였다. 그이를 모신 크나큰 기쁨과 감격을 안고 군인들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최신기술로 장비한 여러가지 훈련기재들을 능숙히 다루면서 평시에 련마한 자기들의 훈련모습을 그이께 보여드리였다.

그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훈련기재의 착상을 아주 잘하였다고, 실정에 맞게 훈련기재를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것만 보아도 이 부대지휘관들이 전투력강화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며 인민군대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훈련을 강화하는데 기본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전시에는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지만 평시에는 훈련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훈련강화의 고귀한 지침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며 지휘관들은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를 찾으시고 교양실을 돌아보시며 록화기의 리용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러신 후 몇명의 군인들을 몸가까이 부르시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수수한 의자에 앉으시여 노래를 부르는 한 병사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를 보지 말고 화면의 가사를 보면서 부르라고, 마이크는 지내 가까이 대면 안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노래가 끝나고 화면에 노래점수가 나왔을 때에는 점수가 95점이라고, 정말 높은 점수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리고 다른 한 병사의 노래를 들으실 때에는 몸소 박자에 맞추어 장단을 쳐주기도 하시고 노래를 다 불렀을 때에는 이 구분대가 문화정서생활을 잘하는것 같다고, 이만하면 부대적으로 1등할수 있다고, 련습을 더 잘하여 꼭 1등을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말씀에는 군인들의 행복과 랑만에 넘친 모습에서 더없는 보람을 느끼시는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이 어려있다.

본사기자 김 성 남

고매한 의리와 충정의 세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주체72(1983)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한 일군을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업을 하나 주겠다고 하시며 동무가 매일 저녁 퇴근할 때 김정일동지를 찾아가 함께 퇴근하자고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과업을 받은 일군은 몹시 난처해하였다.

사실 낮과 밤을 이어 사업에 전념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일군들은 휴식을 하셔야 한다고 한두번만 말씀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그 간절한 청을 언제 한번 들어주신적이 없었다.

그러한 일군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론 이 과업은 집행하기 어려울수 있다고, 그러나 이것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이것은 동무에게 주는 개별분공이라고 그루를 박으시였다.

어느날 일군은 밤 12시가 넘도록 집무실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찾아뵈왔다.

밤중에 예고도 없이 나타난데 대하여 의아해하시며 무슨 일로 왔는가고 다정히 물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일군은 지금 자정이 퍽 넘었습니다, 빨리 퇴근하시였으면 합니다, 매일 밤 집무실에서 밤새워 일하시면 어찌합니까라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내가 밤늦도록 일한다는거야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오늘 동무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수수께끼같은 일이라고 하시며 오히려 그의 남다른 행동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시였다.

순간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불면불휴의 로고를 거듭하시는 장군님의 안녕을 념려하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전사들도 걱정하고 인민들도 걱정합니다라고 간절히 아뢰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은 정말 바쁘다고 하시면서 래일부터 동무의 의견을 참고해보겠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이렇게 되여 일군은 그날밤 한가닥 희망을 안고 돌아서게 되였다.

이튿날 그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여러날 보좌해드리게 된 기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분공을 기어이 수행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날밤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정이 넘도록 사업에 전념하시였다.

일군은 황급히 그이께서 계시는 방으로 달려갔다.

그때에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동무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매우 바쁜 문건들이여서 몸빼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만은 약속을 좀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며 다시 집무를 보시였다.

일군은 안타까운 심정을 누르지 못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이렇게 날마다 밤을 지새우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였다.

평시에 내성적이던 그가 성격에 어울리지 않게 용감성까지 발휘하는데는 틀림없이 무슨 곡절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자기의 무엄한 행동에 대하여 탓할 대신 오히려 뜨겁고 친근하게 물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품에 끌리여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에 대해 자초지종 말씀드리였다.

동무가 수령님으로부터 나를 빨리 퇴근시키라는 개별분공을 받았단 말입니까. …

이렇게 반문하시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시여 평양의 하늘가를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나라고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편안히 지내면 그 모든 부담이 수령님께 쏠리게 됩니다, 내가 제기되는 모든 일을 처리해야 수령님께서 편히 쉬실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의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것이 맺히였다.

며칠후 일군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김정일동지를 아껴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 혁명의 요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실지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은 곧 우리 혁명, 우리 조국이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심장깊이 체득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국

어버이사랑은 년대를 이어

김철로동계급을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으로서의 천품을 타고난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김철로동계급이 세월을 두고 잊지 못하는 이야기들중에는 주체46(1957)년 북방의 철의 기지에 새겨진 가슴뜨거운 사연도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철을 찾으신것은 그해 5월 8일이였다.

그날 1호용광로를 돌아보시고 떠나시려는 어버이수령님께 한 용해공이 반시간만 있으면 출선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아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용해공의 무람없는 간청에서 김철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바쁘신 현지지도의 걸음을 지체하시고 출선모습을 보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오후에 소집하신 협의회에서 그 일을 상기하시며 이곳 로동계급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한무렵에는 김책제철소(당시) 종합상점을 찾으시였다.

내의류매대, 도자기매대 등을 돌아보시며 판매정형을 알아보기도 하시고 제품의 질을 헤아려보기도 하시던 그이께서는 판매원에게 국사발을 보자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판매원이 올리는 국사발을 받아드시고 겉모양과 색갈을 이윽토록 살펴보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사발이 깨끗하다고, 물을 떠서 마셔도 좋겠다고 하시며 김철로동계급을 위해 질좋은 도자기제품을 판매하고있는 상점종업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과분한 평가의 말씀을 받아안은 판매원의 감격은 끝이 없었다.

격정으로 설레이는 판매원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그런데 국수사발은 국수를 담기에는 좀 작은것 같다고 하시며 김치보시기는 왜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순간 동행한 일군들도 판매원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누구도 국수사발의 크기와 김치보시기가 없는데 대하여서는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 그것을 대번에 헤아려보시니 어찌 일군들과 판매원의 격정이 북받쳐오르지 않을수 있었으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곳은 로동자지구인것만큼 부식물을 많이 팔아야 한다고, 그런데 상점에는 부식물의 가지수가 적다고 하시며 부식물의 품종을 늘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당과류매대, 남새매대, 밥반찬매대를 차례로 돌아보시며 상품판매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이곳 판매원들이 판매계획을 넘쳐 수행하있는데서 만족을 느끼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시금 로동자들의 식생활을 두고 걱정하시며 그들을 위해 상점일군들이 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그날 현지지도의 하루를 김철로동계급을 위해 바치시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나 자기들을 마음에 두고계신줄을 다 알지 못하였다.

그해 8월 어느날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적위훈을 세우고 희생된 제철소운전공의 소행을 헤아리시고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

이곳 로동계급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내세워주시려고 그해의 마지막날에도 깊이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19만t능력의 설비에서 27만t의 선철을 생산하고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보고를 올린 기쁨으로 하여 온 제철소가 흥성거리던 그해 마지막날 국가연회참가자들의 명단을 몸소 보아주시던 우리 수령님께서는 김책제철소 대표가 빠졌다고 서운해하시면서 김철의 한 용해공을 위하여 비행기를 띄우도록 하시였다.

그후 연회장에서 그를 만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책제철소 로동계급이 보고싶어 불렀다고 하시며 용광로는 잘 돌아가는가, 앓는 사람은 없는가, 가족들은 다 잘 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연회참가자들에게 바로 이 동무가 27만t의 선철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단단히 한몫한 용해공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그에게 사랑의 축배잔을 안겨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다.

이 나날 김철로동계급에게 베푸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화목한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지난해 12월 어느날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새해전투의 불길을 지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날 전후 김철을 찾으시였던 어버이수령님 모습그대로 이곳 로동계급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기업소의 연혁에 뜨겁게 아로새겨져 빛나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하늘같은 은정을 가슴에 새기고 북방의 철의 기지가 자리잡고있는 청진시 송평구역의 일군들은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지난 기간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구역상업관리소종업원들은 버섯재배실 등을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남새절임저장고를 배로 늘이였다. 그리고 전후에 비해 밥반찬가지수를 몇배로 늘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김철로동계급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였다.

김철로동계급을 비약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은정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력사는 끝없이 흐르고있다.

본사기자 김 동 철

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

개천철도국 개천전철대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들에 실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교양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종업원들속에서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잘해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또한 개천시에 깃들어있는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과 함께 김일성화 김정일화온실참관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누구나가 영광의 고장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일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위대성교양사업이 실속있게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종업원들의 정치사상적열의는 더욱 높아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이들의 투쟁에서는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로농통신원 한 명 성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수도건설의 새력사를 펼쳐주신 절세위인들의

회상기학습을 실속있게

피현군 하단리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불굴의 투쟁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회상기연구발표모임을 자주 조직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얼마전 제1작업반에서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모든것을 다 바쳐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선군시대 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한 토론자들의 열렬한 호소는 모두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회상기연구발표모임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심장에 새긴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날마다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최 원 화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사업을 더욱 심화시키자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관점과 일본새

금강군당위원회 일군들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가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에서는 모든 당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투철한 복무관점을 지니고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얼마전 금강군을 찾았던 우리는 그곳 일군들과 인민들로부터 군당일군들에 대한 인상깊은 말을 많이 듣게 되였다.

그 누구를 만나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군당일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고있었다.

—밤잠을 모르며 뛰고 또 뛰는 우리 군당일군들,

이 얼마나 좋은 평가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여 군당일군들이 인민들로부터 이런 호평을 받게 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없는것만큼 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잘 알고 애써 일하여야 합니다.》

군당위원회는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작전하면서 특별히 중시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세우도록 한것이다.

례하면 군당위원회가 장공장의 곡자생산공정의 CNC화를 전망성있게 밀고나간다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세운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언제까지 완성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웠고 군원료기지조성도 올해에 몇정보 더 늘여 알곡을 몇t 더 생산한다는 식으로 대상과 수자를 매우 구체화하여 세운것이다.

군당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들과 아래단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도 현실적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명백한 일감들을 전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 그 집행을 위한 분공조직사업도 주도세밀하게 따라세웠다.

이렇게 되여 군안의 그 어느 일군을 막론하고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뚜렷한 실적과 흔적을 남길수 있는 일감을 찾아쥐고 분발해나서게 되였다.

장공장의 곡자생산공정의 CNC화, 종이공장생산건물개건, 원료기지확장, 기계수리공장과 옷공장의 설비현대화 등 지방공업공장들과 농업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다.

작전은 어디까지나 전투의 첫 공정에 불과하다.

군당위원회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가 벌어지는 전투적환경에 맞게 일군들의 일본새와 투쟁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이곳 군당위원회 사업에서 이목을 끄는 문제는 일군들이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가지고 분발하고있는것이다.

군당책임비서 류종호동무는 당일군들이 밤잠을 덜자고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이 차례지게 할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내세운 일거리들을 모가 나게 해제끼기 위한 드센 공격전을 벌려나갔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뛰고 또 뛰는 군당책임일군의 이신작칙은 군당일군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도화선으로 되였다.

군당일군들은 매일 《오늘 나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더욱 분발해나섰다.

장공장, 상업관리소를 비롯한 인민생활과 관련된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가공품들을 넉넉히 보장하자면 결정적으로 군원료기지를 더 조성해야만 하였다. 이런 실태를 료해한 군당위원회 조직부일군들은 하회리의 새땅을 일구기로 결심하였다. 새땅을 개간하는 전투는 어려웠다. 하지만 조직부일군들은 앞채를 메고 개간전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25정보의 새땅을 일구어 갖가지 농작물을 심는 혁신을 일으켰다.

군당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읍지구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에 먹는물을 넉넉히 보장하기 위한 과업이 제기되자 주민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벌려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먹는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군당위원회안의 모든 부서, 모든 일군들이 떨쳐나 계획한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드세게 벌림으로써 훌륭한 성과들을 거두게 되였다.

실천과정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투철한 복무관점을 지니고 더 많은 일거리를 찾아쥐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는것만큼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일호

한치의 땅도 귀중히 여기도록

김책시 송암남새전문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김책시 송암남새전문협동농장에 가면 이곳 농장원들이 선경마을이라고 일컫는 농촌문화주택들이 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모래와 자갈뿐이던 자리에 희한하게 펼쳐진 선경마을.

바로 여기에는 한치의 땅도 조국의 재부로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소중한 마음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초급당비서 허택동무가 장현지구에 농촌문화주택들을 새로 지을 결심을 하였을 때였다.

농장원들은 누구라 없이 기뻐하였다. 즐비하게 늘어선 살림집들이 과일나무들속에 파묻힌 희한한 전망도를 보았던것이다. 하지만 새 마을이 강기슭에 일떠서게 된다는것을 알고는 생각들이 깊어졌다.

(좋은 자리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거기에다 건설을 하려고 하는가? 과연 모래, 자갈밭우에 살림집들을 지을수 있을가?)

그럴만도 하였다. 하지만 초급당비서가 왜 강기슭에 살림집부지를 정했는지 사람들은 그때까지 다는 알지 못했다. 사실 초급당비서는 살림집짓기에 맞춤한 자리를 고르기 위해 많은 사색을 기울이고 걸음도 적지 않게 걸었다. 그러던 어느날 장현지구에 나갔던 초급당일군은 무릎을 쳤다.

강기슭에 서있는 살림집 몇채를 보았던것이다. 여기에 얼마든지 살림집들을 건설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 주민들을 만나보니 십분 가능하였다. 힘이 좀 들더라도 여기에 집터를 정하는것이 국가적립장에 서는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손쉽게 얻을수 있는 집터는 얼마든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이 많은 밭을 불모의 땅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새 집들을 짓자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는 돌밭을 잘 가꾸면 옥답으로 될수 있다고 보았다. 산기슭같은 곳은 과일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이렇듯 일군에게 있어서 토지는 더없이 소중한 조국의 재부였다.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려는 정신을 지녔기에 그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것을 가능으로 전환시킬 용단을 내릴수 있었던것이다.

자기 손으로 고향마을을 꾸려나가는데서 초급당위원회가 잘한것은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숭고한 조국애의 정신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실천투쟁에 스스로 뛰여들게 한것이다.

조국애는 한치의 땅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싹트고 자란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리였다.

—물론 하천기슭에 집을 짓는것이 간단치는 않다.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땅에 살림집을 건설할수야 없지 않는가. 농사군의 량심을 놓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일군들은 한치의 땅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친 혁명선렬들의 불타는 조국애의 정신을 깊이 새겨주었다. 이런 교양사업을 박력있게 벌리자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있던 일부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하천을 정리하고 자갈, 모래를 파헤쳐 기초를 쌓아야 할 어려운 과업이 나섰을 때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불같은 헌신성을 발휘하며 대중을 이끌었다. 농장원들의 열의가 높아지는데 맞게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동시키는 방법으로 부족되는 로력과 자재등을 풀어나갔다. 전수산동무를 비롯하여 건설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을 적극 찾아냈으며 농장자체의 힘으로 방대한 과업을 해제끼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김태식동무를 비롯한 관리위원회일군들이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게 하였다.

이에 고무된 대중의 혁명적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아졌다.

하루일이 끝난 저녁이면 누구나 건설장에 달려나왔고 애국의 땀,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뿌리였다.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짧은 기간에 수십동의 살림집을 번듯하게 일떠세웠으며 주변에 흙깔이를 하여 농작물도 심어가꿀수 있게 해놓았다. 그리고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도 많이 심어 그야말로 사회주의선경마을로 전변시켰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을 통해 우리는 참된 애국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

본사기자 전경서

사리원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혁명적학습풍을 세워

최근 사리원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진행하고있는 문답식학습을 보면 하나의 주목할만 한 점이 있다.

그것은 계기와 조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에서나 문답식학습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문답식학습을 실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그에 대한 총화도 제때에 하여 이 학습방법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공장에서 일군들의 주간사업총화시작전에 있은 문답식학습과정만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초급당일군이 문답식학습의 목적과 의의를 알려주고 토론하게 될 학습제목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회의참가자들은 제시된 학습문제를 놓고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생활력과 불패성을 보여주는 생동한 내용들을 안받침하며 문답의 방법으로 토론들을 진행하였다. 초급당부비서 리원화동무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 문제를 놓고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진행된 열병식에서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는 우리 열병대오의 름름하고 씩씩한 모습과 그 어떤 공격에도 대처할수 있는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의 선군정치의 위력과 불패성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짧은 시간에 진행된 학습이였지만 실효는 컸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문답식학습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모든 작업반당세포들에 일반화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근기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문답식학습이 생활화됨에 따라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도 실속있게 짜고들어 종업원들의 학습열의가 실천활동에서 더 큰 은을 내도록 하고있다.

공장이 시적으로 진행되는 선군사상문답식학습경연에서 매번 우승의 영예를 지니고 공장의 전반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된데는 바로 초급당위원회가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그 생활력이 확증된 문답식학습방법을 실천에 적극 구현하여 대중의 사상에 불을 달고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킨것과도 크게 관련되여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진정이 심장을 울렸다

룡천종이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딸들을 사랑하듯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세심히 돌봐주어야 합니다.》

룡천종이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설비들을 현대화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기술자 김동무와의 사업과정만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종이생산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웠을 때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열의는 높았으나 공장자체의 힘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자니 걸린것이 초지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하여 환히 꿰들고있는 기술자가 부족한것이였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다른 공장의 도움을 받자고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새로 사업을 시작한 초급당비서 김경수동무는 어떻게 하나 공장로동자, 기술자들의 힘으로 설비들의 현대화를 실현할 결심을 굳히였다. 이것을 알게 된 오랜 로동자들은 그를 찾아와 집에서 앓고있는 기술자 김광홍동무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기만 하면 설비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얼마든지 풀수 있다고 하였다.

초급당일군은 김광홍동무의 집을 찾았다. 초급당일군은 그의 병치료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리고 공장에서 예견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초급당일군은 건강치 못한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되지 않아 그냥 돌아섰다. 그 다음날 초급당일군은 그의 병치료에 좋은 약들과 보약들을 마련해가지고 또다시 김동무의 집을 찾았다. 이런 초급당일군의 걸음은 며칠동안 계속되였다.

김동무는 초급당일군의 진정에 감동되였다. 그는 초급당일군에게 어떻게 하나 병을 빨리 털고 일어나 공장에 나가겠다고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았다.

며칠후 김동무는 공장에 나와 종이생산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몸을 푹 잠그었다. 그는 벼짚절단기를 종전보다 몇배의 능률을 낼수 있게 개조하고 원료운반계통을 현대화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초급당조직에서 몸을 돌볼것을 몇번이나 권고하였지만 그는 당원은 당결정관철의 길에서 추호도 물러설수 없다고 하면서 완강하게 일해나갔다. 그의 이런 투쟁기풍에 고무된 로동자들은 계획된 날자보다 설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훨씬 앞당겨 나가게 되였다.

김동무는 련이어 다른 설비도 새롭게 개조하여 학습장들을 보다 질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의 건강과 생활을 늘 따뜻이 돌봐주면서 더 높은 실적을 이룩하도록 고무해주었다.

김동무는 이미 거둔 성과에 조금도 만족함이 없이 위생종이생산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혁신에도 이악하게 달라붙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그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력량을 무어주어 그의 결심이 끝까지 실현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리하여 뜻깊은 올해에 공장에서는 위생종이를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놓게 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잘해나갈 때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질좋은 건재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평양목재건구공장에서— 리진명 찍음

과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안고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지 과수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올해 과일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사리원, 은률, 허천, 강상, 고산과수농장들을 비롯한 각 도과수련합회사아래 많은 과수농장들에서 올해 과일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업을 더 발전시켜 근로자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올해에도 능력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수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공동사설의 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각지 과수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년초부터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과수련합총회사와 각 도과수련합회사 일군들은 생산현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농업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사리원과수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대담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 올해 과일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이들은 과수밭의 지력을 높일 때만이 정보당 과일생산량을 늘일수 있다는 자각을 안고 과일나무가꾸기를 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은률, 허천과수농장들에서는 우량품종의 과일나무심기를 잘하고 과학적인 비배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정보당 과일생산량을 늘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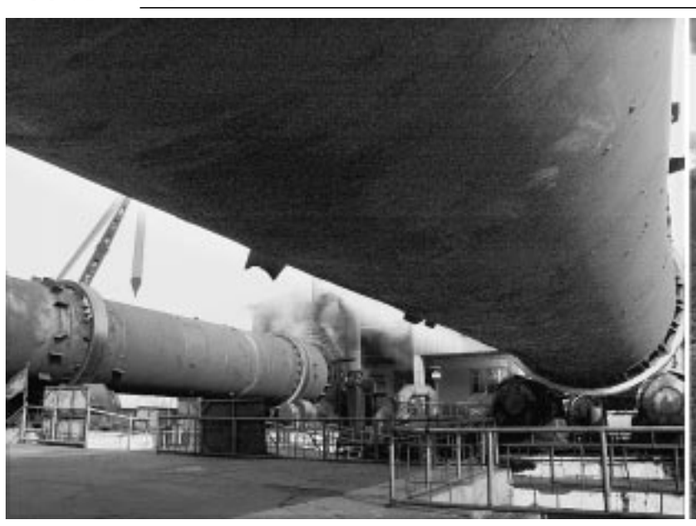
함경남도과수련합회사아래 모든 과수농장들에서 올해 과일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룡전, 덕성과수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과일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떨쳐나섰다. 이들은 불리한 올해날씨조건에서도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과일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금야, 영광, 함주, 정평, 선덕, 신포, 단천과수농장들에서도 과수원마다 정보당 5t이상의 흙보산비료와 많은 거름을 실어내여 과일나무의 수세를 좋게 함으로써 과일생산을 늘이였다.

평양시, 황해북도과수련합회사들이 올해 과일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켰다. 만경대, 사동, 강동, 순안, 연탄, 봉산과수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효능높은 식물성농약을 자체로 생산하여 약뿌리기를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함으로써 과일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곽산, 철산, 구성, 신의주, 피현, 운전, 회령, 어랑, 청진, 길주과수농장들에서도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올해 과일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올해 과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각지 과수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거름실어내기를 비롯한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주체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보산제철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투쟁속에 빛나는 청춘의 삶

곡산군 률리협동농장 청년작업반원들

복받은 대지, 미루벌에 또 하루의 새날이 밝는다. 이 아침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곡산군 률리협동농장 청년작업반원들의 심장은 어이하여 세차게 높뛰는것인가.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청년작업반의 밭벼포전을 찾아주시였던 5년전 력사의 그날을 잊을수 없기때문이다.

그날은 찬이슬이 온 대지를 덮은 이른아침이였다. 그런데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청년작업반의 밭벼포전을 찾아주신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밭벼농사에서는 률리협동농장이 다른 농장보다 앞선것 같습니다.》

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포전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밭벼농사에서 앞장섰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사실 청년작업반의 밭벼농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마련된 종자가 있어 시작된것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밭벼농사에서 이룩된 성과를 모두 청년들에게 안겨주시였으니 그들의 가슴이 어찌 부풀어오르지 않으랴.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알곡생산성과로 보답하자.

청년작업반원들모두가 이런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떨쳐나섰다. 거름과 흙보산비료생산, 소석회실어들이기, 밭갈이, 밭벼심기… 그 많은 농사일을 얼마전까지만 해도 손에 펜을 쥐였던 청년들이 해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5일동안에 밭벼심기를 해내야 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농장일군들속에서 밭벼심기를 적기에 하자면 청년작업반의 밭벼면적을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로력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그날 저녁 청년동맹초급일군인 김학만동무가 작업반장을 찾아왔다.

《투쟁이 없이야 어떻게 청춘의 삶을 빛내일수 있겠습니까. …》

그러면서 그는 청년들이 농사경험이 적은것만은 사실이라고, 그러나 준비만 빈틈없이 잘하면 얼마든지 밭벼심기를 적기에 해낼수 있다고 하였다. 그를 바라보는 작업반장 리향순동무는 배심이 든든해졌다.

다음날부터 밭벼농사에서 품이 가장 많이 드는 유기질비료생산에 력량이 집중되였다. 목표는 높이 세웠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더우기 문제로 된것은 먼곳에서 언땅을 까내고 니탄을 캐서 실어와야 하는것이였다. 그때 임남철동무가 나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이 흙보산비료생산문제를 놓고 주저한다면 어떻게 선군시대 청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의 호소에 모두가 청년들의 본때를 보이자고 호응해나섰다. 눈보라는 청년들의 의지를 시험하려는듯 기승을 부리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려는 청년들의 앞길을 막을수 없었다. 함마질소리, 곡괭이질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리는 속에 니탄더미들이 솟아났다.

드디여 씨뿌리기철이 왔다. 용기백배하여 분발해나선 청년들은 포전에 질좋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내고 밭벼심기를 시작하였다. 밭벼를 심는족족 뒤따라가면서 설친데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니 여간만 품이 많이 들지 않았다.

며칠째 계속된 밭벼심기전투는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았다.

김매기, 북주기, 덧비료주기… 그중에서 밭벼김매기는 논김매기나 강냉이밭김매기와 달라서 품이 많이 들었다. 이러한 때 청년들속에서는 전문부문의 과학자들과 련계를 가지면서 새로운 소농기구를 만들어 밭벼김매기에 리용하자는 안이 나왔다. 다음날부터 눈썰미가 있고 손재간이 있는 청년들이 과학자들과 지혜를 합쳐가며 소농기구를 만들었다. 새로운 소농기구로 김을 매니 로력도 적게 들고 밭벼의 생육에도 좋았다. 그 과정에 청년들은 밭벼농사묘리를 더 잘 알게 되였을뿐아니라 일솜씨도 세련되였다.

올해에도 청년작업반원들은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떨쳐나섰다.

작업반에서는 지난 시기에 창조한 경험을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영농공정별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웠다. 작업반원들은 영광의 땅에 청춘의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밭벼심기와 김매기, 후치질, 북주기, 덧비료주기 등 모든 농사일을 적기에 해내였다.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하기에 이곳 청년작업반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청춘의 삶은 이들처럼 투쟁으로 빛내여야 한다고.

본사기자 김창길

마음먹고 달라붙어

온성군 동포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농장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해바라기를 비롯한 기름작물을 많이 심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근기있게 내밀었다. 농장에서는 올해에만도 수십정보의 면적에 유채와 해바라기, 들깨를 심었다. 지난 시기 기름작물농사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둔 이곳 농장원들은 적기에 앞그루로 유채를 심고 키낮은 작물의 사이그루로는 해바라기를 정성들여 심고 가꾸었다. 그리고 빈땅을 찾아 들깨를 더 심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농장일군들은 기름작물농사도 품을 들인것만큼 된다고 하면서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앞선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힘을 넣었다.

기름작물농사를 잘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제2작업반이 앞장에 섰다. 작업반에서는 기름작물을 심은 포전에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내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좋은 작황을 마련하였다. 제1, 3, 6작업반의 농장원들도 기름작물을 많이 심고 가꾸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완공의 그날을 그려보며

희천발전소건설 철도성려단 돌격대원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희천발전소건설 철도성려단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하나로 불타는 지향이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인 희천발전소건설을 기한전에 앞당겨 완공하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하루빨리 올리려는 불같은 지향, 바로 그것이 가슴마다에 뜨겁게 굽이치고있기에 그들은 막아서는 난관을 맞받아나가며 승리의 날을 앞당겨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해 갱확장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천철도국대대앞에는 버럭처리량을 단번에 두배로 끌어올려야 할 과제가 나섰다. 려단에서는 협의회끝에 부족되는 광차와 레루를 해결해오자고 토의하였다. 그때 려단지휘부로 대대장 안영균동무가 찾아왔다. 그는 대대자체의 힘으로 버럭을 처리하겠다고 제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 희천발전소건설장을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전선으로 내세워주셨습니다. 전투를 하는데 설비가 없어서 공격을 중지하고 앉아있을수야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대장은 돌격대원들의 마음과 마음을 합쳐 운반조직을 짜고든다면 지금 있는 광차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버럭을 처리할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그날 저녁 현장을 돌아보던 려단지휘관들은 때아닌 구령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개천철도국대대 돌격대원들이 갱에서 지휘관의 구령소리에 맞추어 버럭담기, 광차맞물리기 등 버럭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있었다. 누군가가 이런 일은 손에 익은 일인데 좀 쉬고 하자고 하였다. 그때 대대정치일군인 윤의훈동무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가 이번 전투를 잘하면 그만큼 우리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 영광의 그날이 더욱 가까와진다는것을 명심합시다. 그날을 하루 아니 한시라도 앞당깁시다.》

이런 투쟁기풍으로 개천철도국대대 돌격대원들은 버럭운반속도를 두배이상 끌어올리고 려단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완공의 그날에로 힘차게 달려가는 이런 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끓어번지고있는것이 있다.

지난 장마철때였다. 함흥철도국대대의 갱막장으로 시시각각 차오르던 물이 어느덧 가슴을 쳤다. 지휘관들은 작업을 중지하고 막장에서 철수할것을 명령하였다. 얼마쯤 시간이 흘러 갱을 돌아보던 대대장은 그때까지도 착암기소리가 울려오는 곳으로 발길을 향했다. 아니나다를가 김광춘동무를 비롯한 청년돌격대원들이 그날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는 전투장을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물속에서 결사적인 투쟁을 벌리고있었다. 가슴치는 물속에서 서로서로 고무해주며 착암기동음을 울려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대대장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맺히였다. 그는 나어린 돌격대원인 리영국동무에게 다가가 일손을 거들어주며 힘들지 않는가고 물었다.

《우리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이 아닙니까.》

대대에서는 이런 미더운 청년들로 결사대를 뭇고 석수구간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가 조직되였다.

전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사대원들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이름을 한명한명 부르며 대렬을 점검하던 지휘관은 어리둥절해졌다. 마당에 정렬한 대원들의 수가 엄청나게 초과되여있었던것이다. 그속에는 나어린 대원들도 있었다. 억지로 숙소로 떠밀어보냈던 대원들이였다. 그들은 엄한 눈빛으로 자기들을 바라보는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석수도 붕락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릴 완공의 그날에로 달려가는 우리의 청춘시절에 보람없이 흘러간 시간이 생기는것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도 결사대에 받아주십시오.》

그 진정의 목소리는 지휘관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여러차례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고 건설자들을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의 창조자로 온 나라에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친히 특별감사문도 보내주시고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이야말로 당과 수령에 대한 숭고한 충정을 지니고 말로써가 아니라 육탄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나가는 화선용사들이며 강성대국승리의 새날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제일기수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친부모도 헤아리지 못할 친어버이사랑을 거듭거듭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 믿음, 그 사랑에 보답할 불같은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고있는 돌격대원들이기에 거창한 발전소건설장에 그렇듯 순결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아름답게 수놓아가고있는것 아니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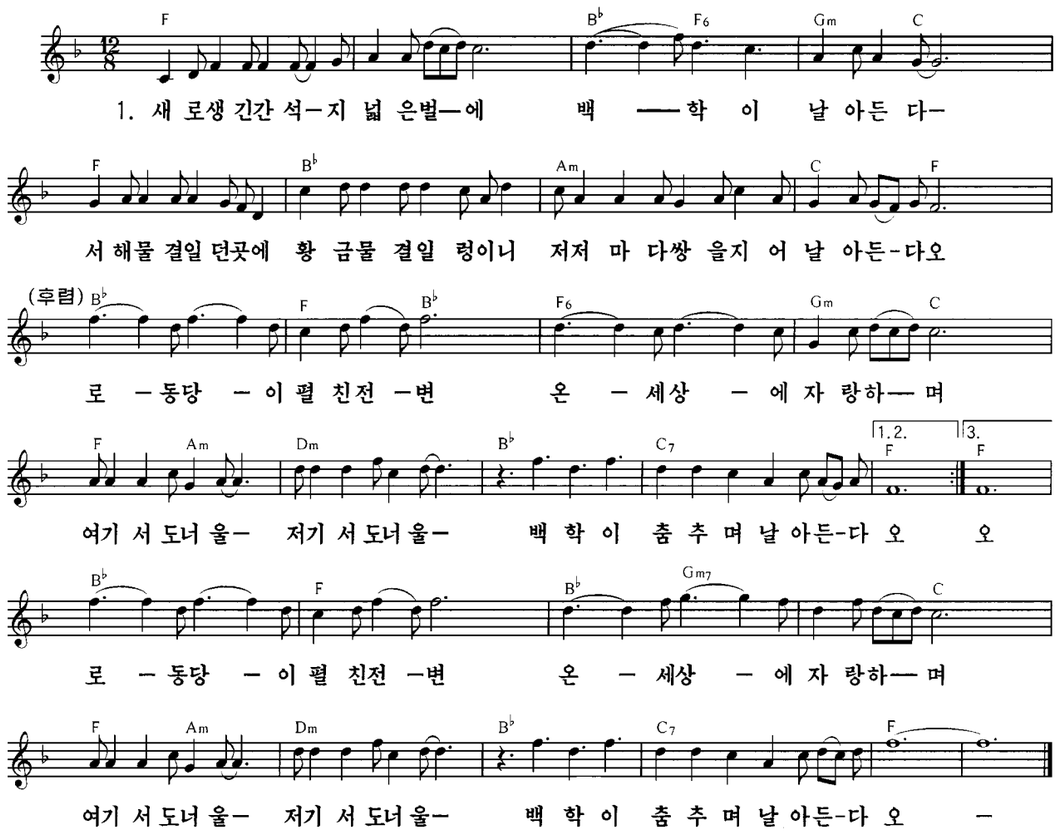
돌격대원들의 어머니가 된 심정으로 대원들의 식탁을 더 푸짐하게 하기 위해 아글타글 지성을 다 바쳐가고있는 청진철도국대대의 허순옥동무도, 누가 보건말건 기대관리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며 대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평양철도국대대의 강건모동무도 아니 려단의 돌격대원들모두가 보답의 한마음으로 완공의 그날을 마중하여 질풍같이 달려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호혁

백학이 날아든다

작사 리지성
작곡 황진영

흥겹게 (♩.=118)



2. 날바다가 희한한 옥토되니
백학이 날아든다
전야에는 기계동음 그림같은 선경마을
전설속의 무릉도원 여기로구나
(후렴)

3. 선군시대 새 풍경 노래하며
백학이 날아든다
천지개벽 지평선에 낟알산이 솟아나니
천만복이 이 땅우에 꽃펴난다오
(후렴)

로동당이 펼친 전변 온 세상에 자랑하며
여기서도 너울 저기서도 너울
백학이 춤추며 날아든다오

영광의 땅에 새겨가는 애국의 마음

함흥시 동흥산구역 부민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함흥시 동흥산구역 부민협동농장 마을중심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판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40여년전 무더운 여름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땅의 지력을 높여 농사를 잘 지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 불타는 맹세안고 농장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진하게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지지도단위를 잘 꾸리고 빛내여나가는것은 당과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올해 정초의 이른아침이였다. 한겨울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판앞에 오래도록 서있는 사람이 있었다.

농장일군인 김종술동무였다. 매일 아침이면 발걸음이 의례히 이곳으로 향하는것은 그의 어길수 없는 첫 일과였다. 몸소 농장에 찾아오시여 농사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되새길 때면 가슴이 뜨겁게 젖어드는 그였다.

그때 문봉환, 위용성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모여왔다. 전날 농장에서는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일군들이 그 앞장에 설것을 호소하였던것이다.

미더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며 하는 김종술동무의 신심에 넘친 말에 이어 일군들이 화답하는 힘찬 목소리가 아침공기를 헤가르며 울려퍼졌다.

《뜻깊은 올해에도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옵시다.》

《우리 뜻도 마음도 하나되여 농장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립시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자각과 열정으로 협동벌은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불같은 마음들이 그대로 질좋은 거름이 되여 포전들을 두툼하게 덮었다.

뜨거운 심장의 열기로 찬기운을 밀어내며 온 농장이 경쟁적으로 거름실어내기를 한창 진행하던 그때 농장일군들은 다시금 한자리에 마주앉았다. 씨뿌리기와 모내기를 비롯한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모든 일들이 드티지 않도록 앞질러가며 미리부터 그 준비를 착실히 갖추기 위해서였다.

열정에 넘쳐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는 그들의 마음은 벌써 풍요한 가을에로 달리고있었다.

이것은 일군들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농장의 모든 분조, 모든 작업반들이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치던 어느날 저녁무렵이였다. 다른 작업반들에 비해 일정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고있던 농산제1작업반원들은 그날계획을 끝내였지만 쉬이 포전을 뜰념을 하지 않았다. 이웃하고있는 다른 작업반포전들에서 아직 일을 끝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을 도와주고 돌아오는 길에 작업반원들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

《반장동무, 농장에서 조건이 제일 불리한 포전들의 모내기를 우리가 맡읍시다.》

《누가 하든 주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비록 힘은 들겠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며 농장포전들을 바라보던 작업반장 임순학동무의 웅글은 목소리가 울리였다.

《옳소. 영광의 땅을 꽃피우는데서 네일, 내일이 따로 있을수 없소. 다 우리 농장을 위한 일이 아니겠소.》

다음날 다른 작업반의 불리한 포전들을 스스로 맡아나선 그들이 일을 드세게 내밀 때 조춘길동무를 비롯한 남새제3작업반원들은 농산제3작업반의 모내기를 적극 지원하였다. 농장벌 그 어디서나 서로 돕고 위하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모내기전투는 물론 김매기, 풀베기를 비롯한 모든 영농공정들이 제철에 질적으로 끝나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열렬한 향토애를 지니고 맡은 농사일을 성실히 하면서 몇해 안되는 짧은 기간에 마을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일도 통이 크게 벌렸다.

메탄가스화와 자연흐름식수도화가 실현된 아담한 문화주택들, 살림집들과 잘 어울리게 건설된 문화후생시설들과 공공건물들,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우거진 살림집들과 뒤동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일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농장벌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그들의 드높은 열정에 의해 농장은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여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진욱

정답게 울리는 분교의 종소리

구월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침일찍 학교길에 오른 산골마을아이들의 귀가에 종소리가 들려온다.

은률군 원평중학교 정곡분교 교원 리금순동무가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까지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종소리이다. 자기들을 부르는 정다운 소리를 들으며 수십명의 학생들은 분교정문으로 씩씩하게 들어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숨은 노력가, 숨은 혁명가들입니다.》

우리는 리금순동무와 함께 분교를 돌아보았다. 그야말로 아담한 정서를 자아내는 분교였다.

교실문너머로 바라보니 수업준비를 갖추고 선생님을 기다리는 분교학생들의 맑은 눈동자가 한눈에 안겨왔다.

첫번째 수업은 수학시간이였는데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서 빨리 숙제검열하기를 기다리는것 같았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리금순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는 학생수가 50명이 훨씬 넘습니다. 교직원도 여럿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땐 학생이 다 합하여 열한명밖에 없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30여년전으로 이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곡분교로 향하는 리금순동무의 가슴은 희망으로 한껏 부풀었다.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로 10여명의 산골마을아이들을 위한 분교가 새로 일떠서고 그곳의 첫 교원으로 자기가 가게 되였다는 긍지가 컸기때문이였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의 재부도 다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덕을 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이깊이 심어주리라.

드바쁜 나날이 흘러갔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생소한 곳에서 모든것을 혼자서 감당한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모든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직한 아들딸들로 키우는것이 그의 소박한 소원이였다.

바로 그렇기에 넘기기 어려운 순간에 부닥칠 때도 자기가 택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 바치는 시간이 모자라는것 같아 늘 안타까와하였다. 하나를 가르치자고 해도 그와 관련된 수많은 참고서적들을 읽어야 하였고 만능교원이 되여야 했다.

언제인가 그가 악기를 배우고싶어하는 한 학생과 함께 밤새껏 울려가던 손풍금소리를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잊지 않고있다.

방학이 되면 군내 건설장들을 찾아다니며 진행하는 이곳 분교학생들의 명랑한 예술소품공연을 놓고서도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그의 교육자적량심을 엿볼수 있다.

산골마을의 학생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가며 누가 보건말건 묵묵히 한생을 바쳐가는 길에 오늘은 그의 딸인 정미경동무도 생의 자욱을 빛내이고있다. 단발머리처녀시절 어머니처럼 스스로 이 길을 걷고있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들로 믿음직하게 키워가는 길에서 그들은 분교의 종소리를 더욱 힘차게 울려갈것이다.

김옥별

제29차 윤이상음악회 페막

제29차 윤이상음악회가 페막되였다.

음악회 페막공연이 12일 윤이상음악당에서 있었다.

문화성 부상 한철, 관계부문 일군들, 중앙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부문 교원, 연구사, 학생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윤이상선생의 부인과 딸,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게르하르드 티데만주조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도이췰란드음악방송회사취재단 등이 공연을 보았다.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 예술인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관현악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윤이상작곡 현악4중주 제6번, 베르디작곡 가극 《운명의 힘》서곡 등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재치있는 연주기법으로 곡상의 요구를 잘 살림으로써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진행된 제2일 공연에서는 윤이상작곡 현을 위한 《융단》을 비롯한 여러 곡목들이 연주되였다.

제9차 무한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평양교예단 배우들 귀국

중국에서 진행된 제9차 무한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평양교예단 배우들이 12일 귀국하였다.

축전에서 우리 나라 공중교예 《철봉비행》은 축전의 최고상인 금학상을, 중심교예 《연공들의 자랑》은 은학상을 수여받았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참사가 교예배우들을 마중하였다.

예술인들이 주체교예예술의 위력을 떨치고 돌아온 배우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중국을 방문하였던 김책공업종합대학대표단 귀국

중국의 동북대학을 방문하였던 홍서헌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대표단이 12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부총장 정광천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랑과 보답

서성구역 련못동 38인민반 채기숙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얼마전 이른아침 대성산혁명렬사릉으로 꽃송이들을 정히 든 채기숙동무와 그의 막내아들이 오르고있었다. 계단을 밟으며 그들이 주고받는 목소리가 고요를 깨치며 울리였다.

《엄마, 이젠 나도 엄마랑 함께 이 길을 걸을래.》

《그래, 그러자꾸나. 우리 영명이가 이제는 다 컸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와 같이 이 계단을 오른지도 어언 10여년, 하지만 그날따라 채기숙동무의 심정은 류달랐다. 얼마전 당의 신임과 기대속에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일군으로 사업하게 된 긍지와 행복감이 커서인지, 아니면 젖먹이 영명이를 집으로 데려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자기의 작은 발걸음을 어머니의 발걸음에 맞출줄 아는 그 마음이 대견해서인지…

불현듯 채기숙동무의 눈가에 지나온 나날들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그의 마음은 추억의 계단을 밟으며 30여년전 학생소년예술단의 한 성원으로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공연활동을 벌리던 나날로 거슬러올랐다.

못 잊을 이국의 겨울밤, 그때 그는 얼마나 목메여 흐느꼈던가. 예술단성원들의 건강과 생활을 념려하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았을 때 그들모두는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후 공연일정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채기숙동무의 손에는 77송이의 붉은 장미꽃이 정히 들려있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부터 소중히 안고온 그 장미꽃다발을 만수대언덕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삼가 드리며 그는 심장속맹세를 다지였다.

—한생을 다 바쳐 고마운 그 사랑에 보답하리라!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을 졸업하고 중앙의 한 예술단체에서 배우생활을 시작한 채기숙동무는 여러차례에 걸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주체예술의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가던 나날은 또 얼마나 행복하고 긍지로운 시절이였던가.

그 나날 채기숙동무는 보답의 맹세를 지켜 변함없는 한길을 걸어왔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속에 온 나라가 몸부림치고있던 때 자기를 혁명의 군복을 입은 군인예술인대오에 세워주시고 친히 공연도 보아주시며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주저없이 부모를 잃은 네 아이의 어머니가 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그 어려웠던 때 채기숙동무는 자식들을 구김살없이 꿋꿋이 키워 세명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웠으며 그들의 몫까지 합쳐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더 잘 꾸리는 사업과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적극 돕는 일에 지성을 아끼지 않았다.

평범한 배우로부터 교육자, 일군으로 성장하던 그 나날 누가 시키지는 않았어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그의 자그마한 소행을 헤아려 여러차례에 걸쳐 감사를 보내주시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선구자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큰 대회에 불러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실줄 어찌 알았으랴.

…

《과장동지—》

문득 아침대기를 흔들며 울리는 부름소리에 채기숙동무는 상념에서 깨여났다. 손에 꽃송이와 관리도구를 든 리혜정, 강옥주동무를 비롯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무용배우들이 삽시에 그를 둘러쌌다.

《과장동지, 우리도 이 길에 마음과 걸음을 영원히 합치겠습니다.》

어느덧 주작봉마루에 올라선 그들의 눈에 붉은기에 싸여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혁명선렬들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들었다. 혁명선렬들처럼 한생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살며 싸워나갈 그들의 심장속맹세런듯 주작봉마루에는 아침노을이 붉게 타오르고있었다.

본사기자 리남호

농작물육종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국가과학원 세포 및 유전자공학분원에서— 김진명 찍음

중국 신화통신사대표단 귀국

륙준 당상무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신화통신사 대표단이 12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대표단 귀국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레 휴 응이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대표단이 1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일성고급당학교 부교장 신영훈과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레 반 끄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온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위대한 어버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애국애족의 사상과 뜻,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조국땅우에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려명이 밝아오고있다. 그 누구보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시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차별없이 품에 안아주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면서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는 남녘겨레들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다.

《김정일령도자님은 정녕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겨레가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라야 할 민족대단결의 중심이시고 통일의 태양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의 정치는 겨레를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과 존엄을 최우선시하는 민족중시의 정치이다.》 …

남녘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고있는 이 심장의 토로들에서 탁월한 령도력과 뛰여난 정치실력, 조국통일운동사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온 겨레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남녘겨레들의 마음을 잘 알수 있다.

남녘의 인민들은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민족의 무궁번영할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야말로 온 겨레가 안겨살아야 할 따사로운 사랑의 품이라고 격정에 넘쳐 웨치고있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얼마전에 있은 시국강연회에서 이남민중의 마음이 민족단합의 중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향하는것은 필연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령도자님은 우리 겨레에게 빛을 주고 생을 주는 태양이시다. 그이는 민족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운명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나자신의 운명도, 그대들의 운명도 모두 맡아 영원한 삶을 안겨주실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령도자님을 높이 모신 민족의 긍지를 소리높이 자랑하자.》

서울의 한 교수도 《이남민중이 안겨살아야 할 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통일의 길에 나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사상과 리념의 차이나 신앙,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리고 과거여하를 막론하고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는 김정일령수님의 광폭정치는 참으로 천하를 얻고 천하를 움직이는 위대한 정치이다. 나는 진정 우리 이남민중이 안겨살아야 할 품은 민중을 선생으로, 하늘처럼 여기시는 김정일령도자님의 품이라고 확신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리상사회를 오래동안 꿈꾸어온 이남민중은 령도자님따라 통일조국의 그날을 앞당겨갈것이다.》

남조선의 한 통일인사는 동료들에게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겨레에게 가장 정확한 통일방략을 주시고 민족의 통일운동을 곧바로 이끌고계시며 넓으신 도량과 사랑으로 겨레모두를 통일애국의 광장에 세워주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 나선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민족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성업에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김정일령도자님의 숭고한 뜻과 겨레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다. 나는 령도자님의 위인적풍모에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숙망을 풀어주실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이든, 기업가이든, 종교인이든, 군인이든 할것없이 모두가 김정일령도자님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어버이로 우러르는 남조선인민들의 진정을 대변한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 있다면 그것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고 영예를 빛내여주며 밝은 미래를 펼쳐주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는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운은 어느 민족에게나 쉽게 차례지는것이 아니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행운중에 가장 큰 행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지어 과거에 민족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일지라도 너그러이 안아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애국자로 생을 빛내여주신다.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과 바다처럼 넓은 포옹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이 기억하는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있는가.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으로 각계층 인민들을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로 이끄시기에 지난날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들까지도 오늘은 통일애국의 길에서 영생하고있다.》고 격정을 토로하고있다.

서울의 한 정치학교수는 《인덕정치의 위대한 성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령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이북에서 광폭의 정치로 새겨진다. 평양교외의 신미동에 있는 애국렬사릉은 김정일령수님의 광폭정치를 실증해주는 증견자이다. 이남에서 장관, 군단장으로 반공의 일선에 섰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각료, 국회의원 등 월북한 요인들이 과거불문의 민족대단결품에 안기여 애국자로 안치되여있다.

화강석비에 새겨진 돌사진과 더불어 영생하는 그들은 오늘도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의 인덕정치의 진실을 말해주며 방문객들의 가슴을 후덥게 해준다.

사상과 리념의 차이, 신앙과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애국의 길에 나선 만사람에게 사랑과 믿음을 베푸시는 김정일령도자님의 광폭정치는 참으로 천하를 얻고 천하를 움직이는 위대한 정치이다.》

남조선의 량심수후원회의 한 회원은 자기의 글에서 이 세상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베푸시는것과 같은 위대한 사랑의 전설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바쳐 싸우는것은 민족성원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도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애국애족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주시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생하도록 뜨거운 사랑을 기울이신다. 령도자님의 사랑은 한없이 뜨겁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처럼 영원하다.》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녀본적이 없는 숭고한 덕망과 무한대한 도량으로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경모의 정은 이처럼 뜨겁고 열렬하다.

지금 이 시각도 남녘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시고 민족의 통일과 무궁번영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으로만 달리고있다.

언제나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의 품을 그리며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앞날을 앞당기려는 남녘겨레의 불같은 지향과 념원을 과연 그 누가 가로막을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심철영

력사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주체85(1996)년 1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안으시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현지시찰하시였다. 그날 우리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온 겨레에게 통일의 신심과 의지를 안겨주고 조국통일운동에 무한대한 활력을 불어넣어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놀라운 충격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퇴직언론인은 《통일의 령수와 판문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1996년 11월 김정일령도자님의 판문점시찰보도가 우주공간을 꽉 채울 때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전률하였다.

가랑잎날리는 소리에도 흠칫 놀라 자동총의 격발장치를 풀어놓는다는 판문점에 그것도 남쪽 경계성원들이 촘촘히 늘어선 중앙분리선 그 수십m앞까지 그분께서 나오실줄은 누구도 상상할수 없었다. 조미대결이 극점에로 치닫던 그때의 상황에서 김정일령도자님께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열점지역인 판문점에 대한 시찰을 단행하시였으니 놀라움은 클수밖에 없었다.

김정일령도자님의 판문점시찰은 사실상 위대한 장군으로서의 그분의 기상을 그대로 보여준 또 한번의 계기가 되였다고 할수 있다.

김정일령도자님의 판문점시찰후 혼란에 빠진 남조선당국자들의 몰골은 가관의 극치였다.》

판문점의 안개전설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신 이후 남조선에서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졌는데 그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11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이였다.

그날의 판문점은 여느날과 다름없이 아침부터 맑은 날이였다. 총구들이 서로 맞서있는 판문점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떠돌고있었다. 감시병들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원격감시경으로 북측 판문각쪽을 살피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는 바람에 도저히 북쪽을 감시할수가 없었다. 감시병들은 신기하면서도 이상스러운 천지조화를 감시경으로 지켜보고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평양방송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령수께서 판문점을 현지시찰하시였다는 보도가 발표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판문점감시병들은 기절초풍하고 말았다. 이날 판문점에 나와있던 근무자들은 미군사령부와 국방부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았다. 얼떠름해진 판문점감시병들은 귀신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김정일령수께서 백두산축지법을 쓰시는게 분명하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

이 이야기는 오늘도 남조선민심을 깊이 파고들고있다고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찬탄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주민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림진각근처에로 나갔다. 아들과 함께 조선지도를 그린 연을 띄워 북으로 날려보내는 그의 가슴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으로 끓어넘쳤다.

그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몇해전 11월 24일 판문점을 다녀가셨다고 한다. 대결의 최전방에 그분께서 나오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이남동포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시였으면 한몸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시고 서울이 지척인 판문점에까지 나오셨겠느냐.

그분께서는 조국통일을 자신의 제일사명으로 삼고계신다. 갈라진 민족의 고통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통일조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얼마나 고마운분이시냐.

이곳에 와서 김정일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판문점쪽을 바라보느라니 통일의 그날이 보이는듯싶다. 그분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빛나고계시기에 통일의 새아침은 꼭 온다.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 그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더 꿋꿋이 살아가자.》

아버지가 들려주는 뜻깊은 말을 듣는 아들의 가슴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불타올랐다고 한다.

본사기자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조치들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이딸리아정당, 단체 공동성명 발표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이딸리아위원회가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검열단 진상공개장(1)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검열단 진상공개장(1)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지난 3월 《천안》호침몰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를 조선과 결부시키면서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였다. 공화국정부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책동을 날조극, 모략극으로 락인하고 사태의 진상을 해명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검열단의 현지조사를 제안하였다. 사건의 흑막이 드러나는데 불안을 느낀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국방위원회검열단의 현지조사를 결사반대하면서 서둘러 《민군합동조사단》의 그 무슨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았으며 그것이 온통 의혹투성이로 몰리우게 되자 최근에는 《최종보고서》라는것을 또다시 날조해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최종보고서》를 보면 어느것하나 과학적이고 론리적인 증거는 없고 전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차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조선반도주변해상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들을 계속 벌리고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제재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아시아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있으며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해치기 위해 미국에 더욱 추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사회주의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경제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이딸리아위원회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조치들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또한 이딸리아의 진보적정당, 단체들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천안》호사건날조극을 폭로규탄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고무를 보내줄것을 호소한다.

생존권실현을 위한 투쟁 전개

남조선의 민주로총 로조원 4만여명이 7일 서울에서 로동기본권사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전태일렬사가 독재《정권》의 반로동자정책에 항거하여 분신자결한 때로부터 40년이 되였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도 로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계속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현 《정권》이 로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거리로 내쫓고 로동운동을 탄압하고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민주로총이 각계와의 단결과 련대를 강화하여 반민중적악정을 일삼는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에 앞서 민주로총산하 부문별로조들은 서울의 곳곳에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투쟁들을 전개하였다.

이날 파쑈당국은 집회장주변에 113개 중대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고취하였다.

민간인불법사찰증거를 없애려 한 사실 폭로

5일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국무총리실산하 공직륜리지원관실의 민간인불법사찰행위를 숨기려고 책동한 청와대의 비렬한 처사를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 7월초 청와대는 지원관실에 손전화기들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수원의 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민간인불법사찰내용이 기록된 자료들을 콤퓨터에서 영구삭제하도록 하였다.

청와대 행정관이 지원관실에 넘겨준 손전화기들은 불법사찰행위증거를 없애버리는데 리용된 그날로 청와대에 반환되였다.

청와대는 사건에 관여한 행정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기 직전에 손전화기들을 없애버렸다.

지금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의 범행을 《립증》할만 한 자료가 없기때문에 재수사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당국의 이러한 비렬한 책동은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실천련대 성원에게 징역형 선고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8일 대법원이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성원에게 실형을 들씌웠다.

이날 대법원은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그가 가지고있던 노래들이 《북을 찬양하는 리적표현물》이라고 하면서 징역 2년형 등을 선고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요구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8일 북남관계개선을 회피하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5일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난데 대해 언급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혈육의 상봉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적십자사가 말끝마다 상봉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웨쳤지만 실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수 없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겨우 두차례 진행되였으며 그것도 모두 북의 제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것은 당국이 상봉문제를 얼마나 등한시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사설은 개탄하였다.

사설은 당국이 진정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 남북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날로 커가고있다고 하면서 사설은 당국이 이를 위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굴욕적인 추가협상을 반대하여 통성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들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굴욕적인 추가협상을 반대하여 8일 비상시국통성에 돌입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들은 이날 서울 보신각앞에서 통성투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추가협상을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4일부터 7일까지 실무협의가 있었고 8일부터는 장관급회의가 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 추가협상의 기본대상은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과 자동차시장개방이라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그들은 각계각층이 《협정》체결책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왔지만 그때마다 당국은 개방만이 살길이라고 떠들며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였고 오늘은 더 많은것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강압적요구에 굴복하여 추가협상놀음을 벌리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협정》에서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리익의 균형》을 운운하는것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력대로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리익을 위한 희생물로 삼아왔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정》체결을 저지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통성투쟁에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추가협상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초불집회, 미국대사관앞에서의 기자회견, 강연회 등을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당국의 굴욕적인 추가협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사건진상은폐책동을 규탄

남조선의 미군철수운동본부가 5일 론평을 발표하여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은폐시키려는 당국의 부당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론평은 국방부가 《천안》호사건의 결정적증거로 내세웠던 어뢰추진체내부에 붙어있던 조개껍질을 일부러 떼낸데 대해 언급하였다.

함선이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조개껍질을 떼낸것은 결국 증거를 없애고 사고원인을 밝힐수 없게 만들려는 국방부의 고의적인 술책이라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조선반도를 전쟁위기에로 몰아넣은 조작사기사건의 진상규명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방부의 이번 처사는 현 《정권》이 한순간도 거짓과 사기가 없으면 권력을 유지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론평은 모든 진보세력이 단결하여 음모를 일삼는 보수패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무모한 반공화국소동

《천안》호사건과 같은 특대형모략극을 연출하여 우리를 집요하게 모해하며 대결광기를 부려오던 남조선당국이 요즘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턱대고 또다시 극도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그 누구의 《도발과 테로가 예견》된다는 모략적인 여론을 퍼뜨리면서 《보안》의 간판을 내걸고 남조선 전지역에서 일대 복닥소동을 일구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대통령실장》과 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참가하에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테로》대비책을 론의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그에 뒤이어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라는데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국제회의를 전후하여 북이 《대남테로공작을 위해 〈알 카에다〉조직과 련계할 가능성이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그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망발까지 줴쳤다.

이처럼 《북의 도발가능성》이 요란히 광고되는 속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 공화국을 《주되는 위협감시세력》으로 규정한 남조선군부는 공중과 해상, 비행장 등지에서 발생할수 있는 《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작전본부를 설치하고 《북방한계선침범》 등 《도발》류형까지 설정해놓고 《보안》소동을 일으키고있다.

한편 경찰당국도 전지역의 경찰을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체제》에 진입시키였다. 회의장주변 등에 배치된 경찰병력만도 무려 5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의 주요항공역들에서는 《심각단계》의 《보안》등급이 적용되고있는데 이런 조치가 취해지기는 사상처음이라고 한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은 일찌기 볼수 없었던 살벌한 경계태세하에 놓여있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복닥소동이 과연 그 누구의 《도발》이나 《테로위협》이 실지로 존재하기때문에 벌어지는것이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남조선집권세력의 속심은 국제회의가 진행되는것을 기화로 북의 《위협과 도발》설을 적극 류포시켜 남조선은 물론 국제적판도에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여 각계에서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여론을 눅잦혀보자는것이다. 함선침몰사건이라는 특대형모략극을 꾸며내여 북의 《도발》을 기정사실화하려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처한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우리를 끝까지 걸고들어 이미 실패한 《대북정책》과 대화파탄, 협력거부책동을 정당화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것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남조선당국은 지금 국제회의의 《보안》을 위한다는 명목밑에 미국과 공조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위험한 군사적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미 미군부와의 《련합감시태세》와 《국지도발대비태세》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 남조선호전광들은 이른바 《대북감시태세강화》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미국상전에게 《U-2》고공전략정찰기와 조기경보통제기의 감시정찰능력을 더 높여줄것을 애걸하였다. 지어 위험한 최신예전투기인 《F-22A랩터》편대를 남조선에 증파해줄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반도긴장완화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북침전쟁도발위험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우리를 무력으로 해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배치되게 동족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전쟁소동에 광분하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망동은 지금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있다. 북남관계개선여론에 밀리워 곤경에 처한 그들이 불리한 처지를 역전시키고 김이 점점 빠져가는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명분을 세워보려고 서푼짜리 모략소동에 매달리고있지만 그것은 안팎으로 고립되고 궁지에 몰린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일따름이다.

본사기자 허영민

긴장완화에 제동을 거는 행위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대화와 협력이 활성화되여 조선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북남관계가 개선될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집권세력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여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계속 고집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고있다. 그들은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내걸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천안》호사건과 핵문제의 해결을 운운하면서 그것이 없이는 대화와 협력에 나설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론리를 들고나오는것이다.

얼마전 남조선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조선반도평화의 출발점은 《북의 비핵화진전》이라느니, 《천안》호사건에 대한 북의 《책임있는 조치》니 뭐니 하면서 《선비핵화, 후남북대화》론을 떠들었다.

외교통상부의 대결분자들도 북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기 전에는 남북대화를 재개할수 없다.》고 비린청을 돋구었다.

이러한 망발들에는 억지를 써서라도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흐리고 우리와 계속 엇서며 대결하려는 흉계가 비껴있다.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사건과 핵문제를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주패장으로 써먹고있다.

《천안》호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상태에 빠뜨리고 북침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꾸며진 모략극이라는것은 이미 세계의 면전에 낱낱이 드러났다.

우리는 최근에 발표한 국방위원회검열단 진상공개장을 통하여 《천안》호사건이 미국의 조종밑에 남조선당국이 날조한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반공화국모략극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금 과학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밝히였다.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의 공정한 여론도 그에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집권세력이 마치도 《천안》호가 북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된듯이 사태를 계속 오도하면서 그것을 걸고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것은 용납 못할 반민족적망동이다. 우리와 언제까지나 대결함으로써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자는 흉심을 품은자들만이 그따위 비렬한 행위를 할수 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화와 협력을 할수 없다고 앙탈을 부리는것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한 생트집이다.

핵문제는 북남관계와 관련이 없다. 조선반도핵문제는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만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온 미국때문에 발생한것으로서 미국과 우리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의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고 핵문제해결의 길이 가로막히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기지화정책의 하수인이며 핵문제해결의 훼방군인 남조선당국은 애당초 핵문제해결을 운운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마치도 우리때문에 핵문제해결이 지연되고있는듯이 떠들면서 그것을 구실로 대화와 협력을 거부해나서는것은 누가 보아도 파렴치한짓이다.

남조선당국이 북침선제공격흉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수법으로 북남대화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뿌리고있는것도 스쳐지날수 없다.

최근 남조선호전세력은 《안보총괄점검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대북선제타격》을 모의하였다. 북의 그 무슨 《징후》가 보일 경우 그 《근거지를 먼저 공격》한다는것이 그들이 모의한 《대북선제타격》계획의 골자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있지도 않는 북의 《도발》을 떠들면서 이런 위험한 전쟁모의를 한것은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로골적인 북남관계파괴책동이다. 이로써 남조선집권세력은 저들이 북남관계개선도 조국통일도 다 부정하고 오직 외세와 결탁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기어이 감행하려 한다는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입에 뻔질나게 올리고있는 북의 《도발》설은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의 파렴치한 망발이다. 그것을 계속 늘어놓고있는것은 북남관계를 6.15이전의 대결시대에로 되돌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위험국면에 빠뜨린 저들의 범죄적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잔꾀의 발로이다.

지금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그들은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조선반도의 동, 서해와 남조선도처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공을 가상한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참가시킨 가운데 조선서해에서 또다시 련합해상훈련을 벌릴것이라고 공포한것은 그들의 북침전쟁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준다.

내외호전세력들이 우리를 겨냥한 도발적인 불장난을 계속 벌리면서 그것을 《방어훈련》으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것으로 묘사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오늘의 밝은 세상에서 억지궤변은 통할수 없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성실한 노력에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서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망동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집권자들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로 향한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하며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전환하는데로 나와야 할것이다.

엄일규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범죄행위

국제무대에서 의연히 힘의 론리, 힘의 정치가 사라지지 않고있다. 국제법과 국제질서가 특정한 세력의 전횡과 강권에 의하여 유린, 파괴되는 상황이 지속되고있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군사적침공과 위협이 중단되지 않고있으며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제도를 모략적인 방법으로 뒤집어엎으려는 비렬한 시도들이 우심해지고있다. 여기에 《인권옹호》라는 간판이 도용되고있다. 이로 하여 나라들사이에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고 지어 물리적충돌까지 일어나고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의 책임은 저들의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적인 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권옹호》간판을 도용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과 민간인살륙만행을 《인권옹호》라는 간판으로 합리화하고있다. 그들은 《인권문제》를 내들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훈시질하는가 하면 압력과 제재를 들이대며 서방식《인권기준》을 받아들일것을 강요하고있다. 그들이 외워대는 《인권옹호》타령은 진실을 외곡하고 세상을 거꾸로 보는자들만이 할수 있는 황당한 수작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문제를 저들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걸고들며 시비중상을 일삼고있다. 그 대표자가 미국이다. 미국은 저들이 마치도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듯이 해마다 그 무슨 《인권문제》와 관련한 《년례보고서》를 발표하여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서방식《인권기준》을 내리먹이려 하고있다.

사실 세계에는 력사와 문화전통, 발전수준, 생활방식 등이 서로 다른 모든 나라들에 다 들어맞는 유일적인 인권기준이란 있을수 없다. 더우기 미국이 떠드는 서방식《인권기준》은 반동적이고 부당한것으로서 아무런 보편성도 공정성도 없다. 때문에 그것은 세계곳곳에서 배척당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서방식《인권기준》을 다른 나라들에 내리먹이려 하는것은 저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모든 나라들에 지배하게 함으로써 세계를 저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 좌지우지하자는것이다. 여기에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옹호》타령의 반동적본질과 목적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광고를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 침략과 지배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써먹고있다. 그들은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가치》라는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압력을 가하고있다. 그들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저들의 지배와 략탈정책에 저촉되는 다른 나라들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대외정책에 대해 시비중상하면서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을 저들의 방식대로 할것을 강요하고있다. 서방세력들은 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거들며 집단적인 내정간섭과 압력을 가하고있다. 지어 그들은 인도주의문제에까지 《인권문제》를 끌어들이면서 그것을 정치적흥정물로 삼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은 해당 나라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주의원조를 받으려면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경제제재와 봉쇄까지 일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안으로부터 와해변질시키고 친서방적인 정권을 조작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이 나라들에서 반동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적혼란과 불만을 조장야기시키고는 해당 나라 정부들이 그에 대처하는데 대해서는 《인권탄압》이니, 《민주주의후퇴》니 뭐니 하면서 내정간섭행위를 뻐젓이 감행하며 서방식《민주주의》, 《인권기준》을 강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다가 기회가 조성되면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전복한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감행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도 《테로방지》, 《독재청산》,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였다. 지난 세기 말엽 미국에 의한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에 대한 무력침공, 유고슬라비아(당시)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도 다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였었다. 력사가 보여주듯이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타령에는 반드시 침략과 전쟁, 군사적간섭이 뒤따른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간판을 개별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지명공격, 결의채택 등에 써먹고있다. 이것은 명백히 인권의 정치화, 이중기준정책의 산물이며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문화와 전통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서로가 존중해주고 협조를 도모하며 공정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그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며 부당한 이중기준을 가지고 저들의 리속에 맞게 제멋대로 다루고있으며 그것을 반제자주적인 나라, 저들의 말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의 도구로 리용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문제》를 교묘하게 리용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고립시키고 제압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중한 《인권문제》가 있는듯이 여론화하는 반면에 저들에게 추종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인권문제》가 없는것처럼 묘사하는 편견적인 립장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해당 나라의 사회제도에 불만을 품고있는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주고있다. 이와 함께 저들의 《인권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지명공격하며 압박하는 전술도 쓰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인권피고》로 몰아대고있다.

원래 인권문제는 그 어떤 특정한 나라나 세력들이 좌우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제멋대로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인권피고》의 감투를 씌워 어째보려 하고있다. 이 나라들을 고립약화시켜 저들의 비위에 맞는 정권을 세우자는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인권의 정치화, 이중기준은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분쟁을 조장시키고 국제평화질서를 파괴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있다.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계 진보적인 나라들과 인민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인권옹호》타령의 기만성과 불순한 목적, 위험성을 똑바로 간파하고 단합된 힘으로 그들의 범죄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행위는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이다. 평화와 안전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행위로 하여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란폭하게 침해유린당하고 무고한 인민들이 희생되고있다.

인권의 정치화와 이중기준을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저들의 《인권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지명공격하며 압박하는것은 국제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세계적인 인권보장노력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의 정치화, 이중기준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총대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인권옹호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국가령역내에서 인권을 향유하고 보호받는것만큼 국가주권이 침해당하면 례외없이 인권이 짓밟힌다.

미국주도하의 《반테로전》이 벌어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에 강점당한 팔레스티나땅에서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인권유린의 희생물로 되여 목숨을 잃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웅변으로 립증해준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총대에 의하여 국가주권이 고수되지 못하면 인권의 향유와 보호를 기대할수 없다. 총대야말로 국가주권과 인권보장의 위력한 담보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간판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인권유린행위를 정당화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의 범죄적정체는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기만적인 《인권옹호》간판을 더는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리 학 남

조선의 정치방식

네팔신문 《아르판》 5일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사상, 선군정치, 사회경제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의 본질과 철학적원리, 지도적원칙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상 주체의 원칙,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수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신문은 조선은 선군정치를 실시하고있다고 하면서 선군정치의 본질에 대하여 렬거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60년 8월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으며 1990년대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였다.

그이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결정적국면이 마련되였다.

신문은 또한 생산수단의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는 조선의 경제적기초를 이룬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수단의 소유형태가 협동적인것에서 전인민적인것으로 전환되여가고있으며 사회의 물질적부가 날로 증대되고있는데 대하여, 당과 정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소개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가 4일 블레찐에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을 소개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블레찐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를 기화로 더욱 악랄해진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제재, 혹심한 자연재해 등은 조선의 경제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조선의 경제가 짧은 기간에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은 경제강국실현을 눈앞에 두게 된 근본비결의 하나는 경제건설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데 있다.

조선인민은 자기 운명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난관을 뚫고나갔다.

조선인민은 견인불발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지난 10여년간 6만여개의 기본건설대상을 일떠세우는 등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까지 마련하였다.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높은 수준의 기계설비들도 자체의 기술로 만들어내고있다.

조선에서는 경제건설이 국내자원에 의거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진행되고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였다.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건설되고 발전하는 조선의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 관계없이 무섭게 용을 쓰며 일떠서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본사기자

렬사들에 대한 가장 훌륭한 위로

중국신문의 글

중국의 《해방군보》 10월 25일부가 《렬사들에 대한 가장 훌륭한 위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한 중국고위군사대표단이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묘를 찾은데 대해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렬사들을 추모하는것은 중국측 대표단성원들만이 아니였다.

이날 조선의 수많은 군인들과 인민들이 이곳에 와서 지원군렬사들을 그리는 조선인민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지원군렬사들에 대한 가장 훌륭한 위로는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이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는것이다.

중국고위군사대표단 단장은 《우리가 이곳에서 선렬들을 추모하는것은 력사를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중조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가꾸어오신 중조친선은 반드시 대를 이어 전해지고 빛을 뿌릴것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그렇다. 중조 두 나라 인민은 지금 렬사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자기 조국을 더 잘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렬사들에 대한 가장 훌륭한 위로가 아니겠는가!

대표단성원들은 묵묵히 렬사묘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근엄한 얼굴에는 선렬들에 대한 그리움과 평화에 대한 념원이 어려있었다.

본사기자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7일 수단대통령특사와의 담화석상에서 수단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내세워 수단대통령을 제거하고 이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였다.

법정에 나서야 할 죄인들은 다름아닌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한 이전 미국대통령 부쉬와 이전 영국수상 블래어이라는데 대해 강조하고 그는 미국과 서방렬강들이 수단과 같은 자주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비렬한 행위를 일삼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유태국가인정을 거부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마흐무드 아빠스가 8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을 유태국가로 인정하는것을 거부하는 립장을 다시금 밝혔다.

만일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이 그런 인정을 한다면 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을 추방할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주게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은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결의들을 성실히 리행하였지만 이스라엘당국은 이와 배치되게 행동하였다고 단죄하고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은 1년안으로 독립국가창설을 기어이 선포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스라엘의 핵야망을 단죄

유엔주재 에짚트상임대표가 8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핵야망을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당국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핵활동을 계속 추구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처사는 명백히 중동지역에서 핵전파의 위험을 증대시키고있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기상위성 발사

중국에서 5일 두번째 기상위성 《풍운—3》호를 성과적으로 쏴올렸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쎈터에서 《장정—4》호(병)운반로케트에 의해 발사되였다.

10여종의 기구들이 설치되여있는 이 위성은 중국의 기상관측과 중기일기예보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본사기자

녹아나는 나토군

2일과 3일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병사 2명이 남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공격을 받아 또 즉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미생물비료 생산, 록지조성사업

중국에서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미생물비료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현재 전국각지에 800여개의 미생물비료공장이 꾸려져있다.

여기에서 년간 900만t의 미생물비료가 생산되고있다.

또한 중국 베이징시에서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록지조성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시에서는 최근 5년동안 도로연선과 공원들에 여러종의 나무들을 많이 심었다.

그리하여 한사람당 평균 공공록지면적은 2006년의 12㎡로부터 현재 15㎡로 늘어났다.

공업생산 증대

브라질에서 올해 첫 9개월동안에 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1% 증대되였다.

4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에이즈방지사업성과

모잠비끄에서 에이즈방지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에이즈비루스감염률은 14%에 이르렀다. 이것은 3년전에 비해 2% 감소된것으로 된다.

6일 이 나라 라지오방송이 이에 대해 밝혔다.

마약 압수

벌가리아의 경찰과 세관당국이 3일 남부국경지역에서 반마약작전을 벌려 25㎏의 헤로인을 압수하고 12명의 마약관련 범죄자들을 체포하였다.

본사기자

나이제리아의 라고스

자연피해

— 뛰르끼예의 마르딘주에서 3일 산사태가 일어나 6명이 죽고 4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보다 앞서 10월 31일 이딸리아의 또스까나주에서 무더기비에 의한 흙사태로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행방불명되였다.

— 뻬루의 아마조나스강류역에서 7일 무더기비에 의한 흙사태로 피해가 났다.

흙사태로 2명이 목숨을 잃고 10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조선중앙통신】

기업체들 리윤손실, 예산적자

◎ 미국의 대보험업체인 아메리칸 인터내슈널그룹이 5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부터 9월까지 기업체에서 입은 손실액이 24억US$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일본의 주요백화점경영업체인 이세딴 미쯔고시회사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기업체의 리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1% 감소되였다고 발표하였다.

◎ 프랑스에서 9월에 예산적자가 1 242억€에 달하였다. 9일 이 나라 정부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콜레라 계속 전파

아이띠에서 콜레라가 계속 퍼져 인명피해가 늘어나고있다. 8일 이 나라 보건성은 현재 전국적으로 콜레라에 의한 사망자수가 544명, 환자수는 약 8 000명으로 증대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돌림눈병 발생

에짚트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돌림눈병이 발생하였다.

10월 24일 이 나라 보건성은 다할리아, 포트사이드, 다메이따에서 1 830여명이 이 병을 앓고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힘있게 추진되는 중점대상건설

중국에서 공화국이 창건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 중점대상건설을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이를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새 중국이 창건된 1949년 당시에는 경제토대가 미약하고 자금도 부족하여 여러가지 난관이 제기되였으나 중국인민은 나라를 공업국가로 전변시킬데 대한 모주석의 호소를 받들고 중점대상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중국인민은 1950년대에 야금, 기계, 자동차, 석탄, 전력, 국방공업 등 부문의 156개 항목을 골간으로 하는 중점대상건설과제를 수행하여 경제발전의 초보적토대를 마련해놓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대경유전, 반지화강철공사, 류카협수력발전소, 4개의 화학섬유공장, 13개의 화학비료공장, 성곤(성도—곤명) 철도를 비롯한 대상건설공사와 항공, 우주, 원자력, 선박 등 공업분야의 중점대상건설공사들이 완공되였다.

나라에서는 교통, 통신, 에네르기, 수리 등 부문의 대상건설에 큰 힘을 넣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갈주패수력발전소, 평삭로천탄광, 대진철도, 진황도항석탄부두, 대경, 양자, 상해의 30만t능력의 에틸렌공장건설과 남부연해지구 빛섬유케블부설공사를 포함하여 수백개의 중점대상건설공사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고속도로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여 지난해까지 전국적인 고속도로총길이는 6만 5 000㎞로 늘어났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서부지역에서는 120개 항목의 중점대상건설이 진행되였다. 이 기간 도로는 94만㎞이상, 철도는 1만여㎞ 건설되였으며 4억무의 산림이 조성되였다.

올해에도 중국의 각지에서는 중점대상건설공사가 힘있게 벌어졌다.

지난 4월에 복건성에서 총길이 274.9㎞의 복주—하문고속철도건설공사가, 5월에는 강소성 남경시에서 장강을 통과하는 길이 6 042m의 차굴건설공사가 완공되여 개통되였다.

7월에는 섬서성에서 하루 오수처리능력이 500t에 달하는 첫 농촌오수처리장이, 호남성에서는 3만 6 300kW의 발전능력을 가진 첫 풍력발전소가 일떠섰다.

최근 광서장족자치구에 새로운 원유정제공장이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공장의 년간 원유정제능력은 1 000만t이다. 공장은 서남부지역의 긴장한 연유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료녕성에서는 동북지역에서 첫 지하철도인 길이 27.8㎞의 심양지하철도 제1호선건설공사를 끝내고 개통하였으며 사천성에서는 서부지역적으로 첫 지하철도인 길이 18.5㎞의 성도지하철도 제1호선 1단계건설을 완공하였다.

이밖에도 일련의 중점대상건설공사가 현재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중국에서 중점대상들이 련이어 건설됨에 따라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나라의 면모는 더욱 일신되고있다.

본사기자

자멸을 재촉하는자들의 광대극

얼마전 일본 도꾜도 네리마구의 훈련장에서 륙상《자위대》의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교도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륙상《자위대》열병식에는 3 800여명의 《자위대》원들과 전투기 및 수송기 60대, 땅크 등 차량 240대 그리고 항공《자위대》의 《패트리오트》미싸일부대가 동원되였다. 일본수상 간 나오또의 참가하에 진행된 이번 륙상《자위대》의 열병식은 마치도 전쟁을 앞두고 군통수권자가 《자위대》무력을 총점검하는듯 한 인상을 진하게 풍기였다.

열병식에서 간 나오또는 달아오른 재침열기를 내뿜듯이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미동맹을 유지강화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의 모습은 마치도 현대적무기들로 장비하고 재침준비를 완료한 《자위대》의 현 실태에 만족을 느끼며 《자위대》가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가를 내외에 선언하는것 같았다고 외신들은 전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번 륙상《자위대》열병식은 《자위대》가 생겨난 이래 규모가 가장 큰 열병식이였다. 열병식에는 해상《자위대》를 제외한 일본《자위대》의 기본적인 무장장비들이 참가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자위대》무력의 위력을 과시하는 한편 일본이 과거의 제국시절을 되찾아야 하며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는 인식을 《자위대》원들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였던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일제패망후 오늘에 이르는 지난 수십년동안 여러차례의 《방위력정비계획》수행을 통해 《자위대》를 현대적무기들로 무장시키였다. 여기에는 비행기, 땅크, 장갑차, 전투함선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싸일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현대적무장장비들이 포함되여있다. 섬나라인 일본은 그에 맞게 《자위대》의 해상 및 공중무력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급속히 추진시켰다. 이번 륙상《자위대》열병식장에 나타난 비행기와 땅크, 미싸일들은 무장장비현대화계획에 따라 일본반동들이 오래전부터 추진시켜 마련한것들이다.

지금 일본의 항공무력과 해상무력은 미국을 제외한 그 어느 자본주의나라도 견줄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였다. 1954년에 창설된 일본륙상《자위대》는 이미전에 5개의 방면대에 전차사단인 제7사단을 비롯한 11개 사단으로 편성되였으며 1 080여대의 전차, 980여대의 장갑차, 1 850여문의 박격포, 3 230여문의 무반동포를 포함하여 각종 현대적인 무기들을 보유한 공격형전쟁무력으로 자라났다. 일본해상《자위대》는 4만 5 800여명의 병력과 160여척의 현대적인 함선들을 갖추었다. 4척의 《이지스》함을 포함한 58척의 호위함, 35척의 소해함, 8척의 대형수송함 등은 일본해상《자위대》의 중추를 이루고있다. 일본은 《이지스》함 보유에서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일본은 앞으로 잠수함을 현재의 16척에서 22척으로 늘일 계획이다. 일본해상《자위대》는 임의의 해역에서 그 어떤 군사작전도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여있다.

일본항공《자위대》무력도 대폭 강화되였다. 륙상, 해상, 항공《자위대》무력의 조직화, 현대화실태는 결국 일본무력이 《전수방위》가 아니라 해외침략을 위한 정규무력으로 전환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된다. 오늘 일본《자위대》무력은 지난 세기말에 비해 질량적으로 훨씬 확대강화되였다.

일본은 항공모함제조와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완성단계에서 추진하고있으며 정탐위성들을 련이어 쏴올리면서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있다. 사실 일본으로서는 재침을 위한 군사적준비를 완료한셈이다. 이번 륙상《자위대》열병식에서 수상 간 나오또가 중국의 군사력증강과 우리 나라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빗대고 훈시질한것은 저들의 무력증강, 군사대국화책동을 합리화하고 더욱 다그치려는 기도에서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번 륙상《자위대》열병식에서 한 간 나오또의 훈시는 일본의 전쟁무력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에 의한 해외침략기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 륙상《자위대》열병식에 참가한 무력들은 일본이 법적으로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는 공격형무장장비들이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이런 무기들을 뻐젓이 내놓고 열병식을 벌리며 기세를 올리였던것이다. 특히 간 나오또가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위협》을 빗대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미동맹을 강화할것을 떠벌인것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것이나 다름없다.

일미동맹강화는 본질에 있어서 서로 공모결탁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적군사행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일미동맹이 강화될수록 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에 의한 전쟁위험은 더욱 커지게 되고 평화가 엄중히 위협, 파괴당하게 된다. 일본반동들은 교묘하게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확보》의 미명하에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다. 일본은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장치를 이미 마련하여놓았다.

지난 세기 90년대 일본은 이른바 《유사시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의 미명하에 각종 전쟁법들을 련이어 조작하여 미국과의 공동군사행동을 취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새로운 전쟁법조작으로 일본《자위대》의 해외진출과 무기사용이 가능하게 되였다. 일본《자위대》는 《유엔평화유지작전》협력의 미명하에 미군과 나토군에 전쟁물자를 조달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고있다. 지어 일본《자위대》는 전투지역에까지 진출하여 돌아쳤다. 일미동맹강화를 부르짖는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책동이 로골화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긴장해지고 전쟁위험이 짙어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번 륙상《자위대》의 열병식을 통해 《자위대》원들과 국민들에게 전쟁열을 더한층 돋구어주었다. 지난 8월 일본《자위대》가 2 200명의 병력과 약 670대의 땅크와 장갑차, 53문의 포, 27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히가시후지연습장에서 대규모의 실탄사격을 진행할 때 거기에 참가했던 일본반동들이 《자위대》가 《방위》가 아니라 공격무력으로 자라난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환성을 질러 세계를 놀래웠었다. 일본무력의 최고통수권자인 수상의 참가밑에 진행된 이번 륙상《자위대》의 열병식이 《자위대》원들과 국민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조장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불보듯 명백하다.

일본반동들은 어벌이 커질대로 커져 과거침략죄행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이 재침야망에 환장하여 사납게 독을 쓰고있다.

해외팽창은 일본군국주의의 생존방식이다. 일본은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현세기에 와서도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여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참혹한 전쟁재난을 들씌우려고 지랄발광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해 각성을 높이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조선재침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재침책동은 자멸을 불러오는 광대극에 지나지 않는다.

본사기자 백 문 규

ㄱ-01206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